

과학의 몸, 그리고 인문의 몸

이 정 연*

강신익(2013), 『몸의 역사: 의학은 몸을 어떻게 바라보았나』, 파주: 살림출판사.

최근 우리의 일상 속에 식상하리만큼 자주 등장하는 ‘몸’에 관한 정보와 이슈는 학문의 영역에서조차 단골 메뉴가 된 지 오래이다. 더욱이 무용예술 영역에서야 활동의 주체로서, 대상으로서 끊임없이 분출하는 인식론의 방식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과거로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꽤 오랜 시간을 그렇게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얼핏 누군가가 ‘몸이 무엇이나?’고 생뚱맞은 질문을 던진다면- 뇌리 속에 뒹뒹 떠다니는 각종 지식들을 순식간 요약 정리하여 표현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이와 같은 반성의 의미로 집어든 책이 바로 『몸의 역사, 의학은 몸을 어떻게 바라보았나』일지도 모르겠다. 몇 년 전 서점에서 ‘몸’이란 단어에 충동적으로 집어 들었던 작은 문고판 책이 참으로 얹전하게 책꽂이의 한 귀퉁이에 잠들어 있었다. 최근 이 책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여러 분야에서 바라보던 몸에 관한 지식이 ‘의학’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비춰지는지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의학의 역사 속에서 몸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 왔는지 대강의 흐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무용을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이들에게 타 분야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의 몸의 해석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 부분들을 발췌하고 의미를 짚어가면서 본 서평을 전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적잖은 문화충격에 맞닥뜨리거나, 더 나아가 이를 기대하기도 한다. 막연하게 받아들여진 삶의 방식이나 상식이 돌연 생경한 것들로부터 깨어지는 상황, 이로부터 생성되는 물리적, 정서적 혼란을 문화충격이라고 한다. 마구잡이 사냥으로 이윤에 눈이 멀었던 백인들의 눈에 먹을 만큼만 사냥을 하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생활상, 마음대로 인간을 착취하고 이용의 대상으로 취급하던 백인들의 작태는 양쪽 모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화충격이었다. 인디언과 백인의 관계처럼 서로 다른 삶과 삶의 방식이 부딪치는 곳에서 문화충격은 발생한다고 하면서 저자는 글머리에 몸, 삶, 삶에 관한 운을 떼고 있다. 우리가 사고하는 다양한 방법과 체계가 몸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초점을 두고 과학이 가지는 절대성과 폭력성에 입체적인 논리, 보편적 도덕, 상대적 문화 등의 가치를 접근시키며 이야기를 전개한다.

*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ballet65@snu.ac.kr

몸으로 읽는 삶과 삶

저자는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로부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몸에 대한 인식론적 차원의 의학 역사를 알기 쉽게 개념화하고 있다.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몸을 네 가지 액체로 구성된 기능의 단위로 파악했다. 당시 의학의 합리성은 몸의 형태나 구조를 근거로 하여 질병을 파악하는 것이 아닌, 몸의 모든 기능을 중심에 두고 기후나 지리의 조건, 천체와 ‘연관’ 짓는데 있었다. 자연에 적응하고 관계하는 것이 중요했던 당시 사람들의 삶이 녹아있는 지식체계였던 것이다.

르네상스와 과학혁명을 거치면서 이러한 합리성은 변화를 겪는다. 데카르트 이후 세계를 물질과 영혼으로 나누자, 영혼이 빠져나간 몸은 분해와 조립이 가능한 하나의 기계로 전락했다. 사람의 몸을 분해하거나 조립하고자 하는 기능적 충실함을 위해 각 부분의 구조와 형태를 시각화 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일 수밖에 없었다. 몸의 각 부분을 사실처럼 묘사한 해부도가 유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의 해부도에 투영된 의미는 사실상 현재의 해부도와는 달리 임신을 한 여성의 자궁에 열매를 맺은 꽃봉오리 모양을 그려 넣는다거나, 찢겨져 죽은 시신의 모습에 삶을 놓고 싶지 않는 인간의 의지를 담아내는 등 감성이나 인간성이 배제된 해부도와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근세 이후의 몸은 순수한 물질만을 담은 관찰과 분석을 기초로 한 기관과 조직, 세포의 순으로 그 정체를 좁히게 되고, 결국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 그 가운데 핵산이라는 물질(DNA)을 밝혀내는 작업으로 진화하여 이제 그 물질의 정보를 해독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저자는 “이제 생명의 신비는 모두 풀린 것일까?”라는 직설적인 질문을 던지며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외적 완성이 단언할 수 없는 미완성적 진실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이러한 지식이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어떠한 연관을 지니고 있는지, 그 막연함에 대해 진지한 조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예컨대 21세기 의학은 인식과 방법의 폭력에서 벗어나 생생한 삶의 현장 위에 다시 세워져야 하며, 삶과 삶이 하나였던 과거를 되짚어 가며 공부해야 할 것임을 제안한다.

저자는 사람을 몸과 정신으로 나눠 정신에 상처를 남기지 않고, 몸만 실험 도구로 쓸 수 있다는 말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던 역사를 되짚어보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종교전쟁과 인종청소 등 그릇된 철학의 소산에 대해 꼬집고 있다. 인류에게 보다 가치 있는 삶의 목적으로 쓰였던 종교와 철학이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해악으로 작동한 사례, 예를 들어 유대인 학살,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저지른 생체실험이 의학 역사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소산이었음을 고백한다. 여기에 참여했던 지식인, 그 가운데 다수의 의사들이 저질렀던 과오를 통해 혹시 해부학 실습실에서 죽은 몸을 열어보면서 그것을 물질의 덩어리로만 여기지 않는지,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바꾸어가면서 내 몸을 하나의 기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다. 과학적 인식은 합리성과 보편성을 전제로 하며,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감성은 때로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은 결코 합리성이나 보편성만 강조된 과학 이면에 인문학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어서 안 된다. 저자는 여기에 자칫 배제될 수 있었던 과학으로서의 의학에 인문적 인식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인문人文은 ‘사람의 무늬’를 말한다. 제각기 지닌 다양한 무늬로 인해 각자의 개성을 상징하는 몸을 갖게 된다. 의사는 이러한 몸의 무늬를 읽어내야 하며, 그 안에 감추어진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일을 해야만 한다. 그것이 가시적인 수치, 구조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때로는 어떠한 형태를 띄지 않는 내면의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몸은 근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형성한 자아중심의 세계관으로 구성된 몸이지만 아직 그러한 세계관에 속해있지 않은 종족이나 문화도 공존하고 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슈로 삼는 몸에 관한 담론 역시 담론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것일 뿐 어떠한 절대적 관념이나 고정불변의 원칙으로 존재할 수 없다.

저자는 '나'와 내 '몸(body)'이 전혀 다른 존재임을 주장한다. 나는 몸을 '지니고' 있지만 그 몸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공교롭게도 '몸'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만 키운 꼴이 되었다고 말한다. 육체와 정신으로 몸을 이분화 하는 이러한 논리에 빚대어 동양인들의 사고를 예시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허준의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는 몸을 육체와 정신으로 나누는 대신 정精기氣신身의 세 가지 영역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은 인간의 가장 근본이 되는 물질이며 개체 보존을 위한 생식활동에 관여하는 영역으로, 기는 정보다 한 단계 높은 몸의 생리를 담당하는 영역으로, 신은 최고의 높은 단계로 인간의 감정과 심리를 담당한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보면, 동양적 사고는 물질로서의 몸과 그것을 관장하는 초월의 존재를 구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몸의 구조나 기능도 나누지 않는 보다 차원 높은 인식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몸에 관한 우리의 이러한 지식체계가 근대화를 지연시킨 요소가 아니었나 하는 의견에 재고의 필요성을 또한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몸의 의미를 '나는 나의 몸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친해지며, 몸으로 살아갈 뿐이다. 그러므로 나의 몸은 지식과 생활의 주체이며 이들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함축한다. 또한 '몸속에 세상을 새겨 넣음으로써 세상을 알고, 몸을 통해 세상을 만나며, 몸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간다. 곧 나는 몸인 것이다. 아울러 몸은 마음이고, 마음이 곧 몸이다. 몸은 물질이면서 정신이고 추상이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다'라고 하면서 '몸은 하나의 문화 공간이며 육체와 정신으로 나뉜 것이 아닌, 그저 '몸'일 뿐이다'라고 결론짓는다.

근대- 몸의 발견

고대와 중세 시기에는 형벌이나 사후 세계의 삶을 위해 살아있는 몸이나 죽은 몸을 해체하기는 했으나 장기와 조직, 그것들의 위치, 크기, 질감, 빛깔 등에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 중세 유럽에서도 사람의 몸은 '실체'라기보다는 다양한 삶의 '현상'을 드러내는 장소에 불과했다.

그러나 16세기에 이르러 죽은 사람의 몸을 '보이는 대로' 묘사하는 일이 증가한다. 즉 몸의 현상보다는 몸의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다. 당시 볼로냐나 파두아 대학에서는 해부학이 유독 발전하게 되는데 사실상 의학지식 그 자체보다는 '포포먼스'의 성격이 짙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유럽 여러 나라에 학교의 우수성을 알리는 수단과 상업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자는 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페르니쿠스의 인식 혁명과 맞물려 체액의 균형이라는 추상적인 몸의 이해로부터 죽은 몸을 '보이는 대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다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베르살리우스(1514~1564)의 『인체의 구조에 관하여』는 이러한 관찰의 시선과 세계관이 접목된 거대한 산물이라고 하겠다.

근대에 이르러 데카르트의 몸은 형태와 구조를 뛰어넘어 작동 원리를 파헤쳐야 하는 객체로서의 자연

물이 되었고, 마음은 몸에서 분리된 채 마치 프로이트(1856~1939)의 탐구 영역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후 생체의 모든 기관과 조직이 몸속 환경의 항상성에 의해 유지된다는 생리현상에 관한 이론, 타진과 청진법, X-을 통한 몸속 투영 등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의 몸은 점점 더 투명한 실체로 변화한다. 더구나 특정 신체의 '기관(organ)'으로부터 미세한 구조를 갖는 '조직(tissue)'의 세계로 심화함으로써 감각의 방식과 몸을 파악하는 추론 방식 역시 크게 달라졌다.

근대- 외과의학의 역사

저자는 외과의학의 발전과 더불어 현재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현상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몸을 더 이상의 신성불가침 영역이 아닌, 첨단 진단장비로부터의 감시 대상, 변형, 대체, 보충, 재생의 대상으로 변화되어 있음을 주목한다. 지금까지의 몸은 자연선택의 법칙에 의해 진화되어 왔지만 향후 인공선택의 법칙으로 치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공치아, 인공관절, 인공판막, 인공신장, 코나 유방 등의 보형물은 물론, 장기 이식, 인공수정, 대리모, 복제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저자는 “또 다른 내 몸이 있을 수 있고, 그 몸은 나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된다. 나는 나를 착취한다. 그렇다면 나를 착취하는 나는 누구이고 착취당하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면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다.

사회성을 지닌 몸의 발견

근대의 몸이란 생존의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생존의 수단인 몸이 목적인 몸을 압도하는 경우가 있다. 중노동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경우 그렇다.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는 지배계급의 몸은 목적이었고 노예의 몸은 수단이었다. 중노동에 시달린 노예가 걸린 질병, 혹은 상해는 의학의 관심대상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저 운명적인 것이라고 치부하는 대상이었다. 그러나 과학기술과 산업혁명으로 인해 부르주아와 노동계급이 성장하고 이와 더불어 노동자의 몸은 단순한 소모품이 아닌 배려의 대상이 된다. ‘일하는 몸’을 의학의 대상으로 하여 안전사고, 산업재해 보상 등의 법률 제정에 도움이 되었다.

몸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세포병리학의 선구자 비르쇼는 ‘세포 하나하나가 시민인 세포들의 국가’이고, 질병은 ‘몸이라는 국가를 구성하는 세포들 사이의 투쟁’이며, ‘달라진 조건 속의 생명’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의학사상은 사회개혁으로 연결되어 정치, 사회, 문화의 영역으로 그 영역을 넓히게 된다. 예방의학, 공중보건, 교육 및 경제 정책에 반영되며 발전을 거듭한다. 그러나 이후 ‘사회와 연결된 국가 단위의 몸’보다는 ‘개인의 몸’에 집중되는 현상이 빚어지는데 이는 항생제나 백신의 개발과 함께 개인 대상의 진단 및 치료로 강조된 영향이다.

현대에 이르러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면 단연 DNA(유전자) 발견이다. 1953년 왓슨과 크릭이 밝혀낸 구조, 재조합 기술 개발 등으로 유전물질 조작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유전자 결정론이 팽배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각종 질환은 물론, 동성애나 도박 등의 성향까지도 유전적인 것이라는 근거 없는 인식마저 생겨나게 된다. 현대인의 뇌리에 박힌 유전자결정론의 망령은 내 몸에서 뽑은 정보를 저장하고 가공하며, 때로는 상품으로 거래하는 등 다수의 사회 문제로 야기되고 있음을 저자는 지적한다. 사회문화에서 만들어낸 몸의 이미지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여 몸을 바꾸고 욕구를 충족하는 현상, 성형중독이나

다이어트 등의 문제는 이제 내 몸의 주인이 아닌 ‘객체로서의 나’라는 기이한 형국을 연출하고 있다고 꼬집는다.

몸, 미래를 가리키는 방향타

우리의 몸은 무수히 많은 경험을 하는 시간 속의 몸이다. 그것을 ‘체험體驗’이라고 하며 이는 다양한 인식을 저장하는 저장고이다. 저장된 보물을 끄집어내어 후대에게 전해주고 이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진화가 이루어진다. 앞서 전개된 의학 역사의 흐름을 통해 독자는 자기(自己) 자신(自身)으로서의 성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해 온 몸의 인식을 짚어보고, 몸, 앎, 삶이 그 어느 것 하나 따로 존재하지 않는 통합체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무용 예술가, 더 나아가 무용 교육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몸을 통해 몸을 알리고, 또한 몸적 소통을 기대한다. 서양의학에서 바라본 환원주의적 몸 이해의 과정을 통해 다시금 근현대적 합리성의 앎과 삶을 반추하게 하고 재정립하여 우리가 하는 일의 소명을 되새겨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의학으로서의 몸 인식, 과학체계 속에 투영된 인문적 정서를 들여다보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또렷한 목적의식을 다지는 일련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몸의 역사, 의학은 몸을 어떻게 바라보았나』와 더불어 주명철 번역의 『몸의 역사(원제: Histoire du corps, 1 : De la Renaissance aux Lumieres)』를 함께 독서해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몸의 역사, 의학은 몸을 어떻게 바라보았나』가 의학이라는 특수한 관점에서 바라본 몸의 사유라면 후자는 보다 폭넓은 인문적 차원의 역사, 철학적 맥락을 강조하고 있다. 두 책의 비교를 통해 몸 인식에 관한 구체화, 또는 심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